

주민·공무원 합작 저력과시

임실군, 시네마스쿨 '짜통시인' 전북사랑 영상공모전 우수상 수상

임실군 주민과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한 영화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저력을 과시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김제 지평선시네마에서 열린 '2018 우리고장, 우리가 웃 전북사랑 영상공모전'에서 임실시네마스쿨(남·Cine)이 만든 영화 '짜통시인(감독 박미숙)'이 우수상을 수상, 시상회를 가졌다.

이날 임실작은별영화관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관람객들은 "군정 직원과 주민들이 만든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라며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전개가 매우 즐거웠다"고 입을 모았다. 임실시네마스쿨(남·Cine)은 지역주민과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영화동아리다. 지난 2016년부터 해마다 2편씩 총 6편의 영화를 제작하는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영화동아리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지역 영상 미디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공모전은 전주시민미디어센터(센터장 최성은)가 주관하고 전라북



임실 '짜통시인'이 전북사랑 영상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도와 14개 시·군이 참여했다.

이번 '전북사랑 영상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임실시네마스쿨(남·Cine)의 '짜통시인'은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갖게 되는 편견과 선입견을 코믹하고 유쾌하게 스크린에 담아냈다. 박미숙 감독은 "별개만 느껴지던 영화를 임실시네마스쿨을 통하여 더 한층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며 "직접 제작한 짜통시인과 으~갸차차 병만씨 등 두 편의 영화 시상식에 관심을 가져준 주민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실시네마스쿨은 작품 시상회에 주민들을 초대하여 영화를 매개로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영상문화 저변 확대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심민 군수는 "정형화된 행정의 틀을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 열정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여 상까지 받게 된 것을 보니 흐뭇하다"며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창작활동의 다양성을 통해 주민중심의 참신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만인의사 충혼 창극으로 되살려

'정유년 남원성싸움' 27~29일 춘향문화예술회관서

남원시는 27~29일 남원시립국악단을 통해 지난 정유년 발생한 남원성 전투의 숨은 이야기를 창극으로 되살리는 공연을 연다.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선보이는 정유년 남원성 싸움은 27일과 28일은 저녁 7시 30분, 29일에는 오후 3시에 공연할 예정이다.

창극 '정유년 남원성싸움'은 1597년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풀어

낸 것으로, 남원의 군사·민간인 1만 명이 왜군 6만명과 싸워 전멸했지만 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전투로 알려져 있으며, 이 공연에서는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남원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만인의사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고 후세에 그 정신을 이어나간다.

또한 지역의 대표 공연이 되길 희망하며 작품에 임했다"고 전했다.

남원시립국악단의 이번 작품은 춘향

전에 머무르지 않고 남원 지역의 숨겨진 이야기를 작품으로 제작해 남원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개발하는 의미가 있으며, 공연은 무료로 자세한 사항은 전화(063-620-6167) 또는 남원시립국악단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작품은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립국악단이 주관해 원작·구성에 향토소설가 윤영근, 극본 최정주, 연출 오진욱 등 남원 지역에 대해 이해가 높은 연출진들이 참여해 극의 완성도를 높였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지방세 징수 잘한 지자체로 우수기관 선정

임실군이 지방세 징수를 잘한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2,000만원의 상금을 받게 됐다.

군은 전북도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0만원의 시상금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평가기간 동안 현년도 지방세 209억원 부과에 98.9%인 205억원을

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과년도분 체납액 12억원중 41.6%인 5억원의 징수실적을 거두었다.

이에 따라 목표대비 117%의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군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액·고질체납자 재산 724건의 압류와 23건의 공매처분으로 5,000만원을 징수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의 대부분을 차

지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군·읍·면 합동 변호판영치활동과 봉인조치 등을 통하여 4,200만원을 징수했다.

박진두 부군수는 "앞으로도 체납지방세에 대해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할 방침"이라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이우철 '강천산 병풍폭포의 가을정취'

섬진강 사생 공모전 수상작 선정

이우철 '강천산 병풍폭포의 가을정취' 대상

순창군이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4주간 '제4회 순창군 섬진강 자연 생태 관광지 전국사생공모전' 작품(212점)을 접수받아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71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특히, 이우철씨(익산)가 출품한 '강천산 병풍폭포의 가을정취'가 일반부 대상으로 선정돼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 최우수상 = 설동인(순창) '낙덕정' ▲ 우수상 = 오명은(전주) '장군목의 가을맞이', 최기학(순창) '귀래정, 김미선(정읍) '회문산 여름' ▲ 특별상 = 김영

선(청주) '순창의 맛', 김수연(구미) '섬진강' 과 특선 5명, 입선 20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우철 상금 50만원과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는 학생부 대상에는 김태원(목포대덕고 2년)의 '가을날의 산책'이 선정됐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대회에 우리 순창을 방문해 주신 미술인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에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드리고, 수상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드리며 내년에는 꼭 수상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임실군이 올해 상반기에 온실가스 감축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대거 지급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의 가입세대 중 5% 이상 전력량을 감축한 1,249세대에게 2,2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절감한 전기사용량을 이산화탄소 감축량으로 총 325톤으로 이는 30년 수령 소나무 약 5만 그루가 연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에 해당한다.

절감한 전기사용량을 직접 과거 전기 평균 사용량 대비 5%이상 절감하면 반기별로 1년에 2번 정산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어 한 세대당 최대 2



만원 상당의 물품 및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탄소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 가입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지역 매아리



의료기관 관리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2018년 전북도 제3회 공공보건의료 워크숍에서 의료기관 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남원시보건소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불법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연1회 이상 정기지도 점검과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친절한 의료기관 정착에 최선을 다해 왔다.

또한 미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써왔다.

이번 평가는 대중교통분야에서 노력한 부분들을 인정한 것으로, 남원시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으로, 무료환승제, 2,000원 상한요금제, 버스정보시스템(BIS), 버스승강장 운영의자 설치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교통오지 지역에 미니버스(DRT)를 투입하여 교통 불편을 해소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인구감소 대응 총력

순창군이 주민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17일자로 공포했다.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해 혼인신고 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모두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이 야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